

여 “지역일꾼” 야 “정권경종” 공방 가열

■ 막오른 4·24 재보선...정치권 본격 선거전 돌입

朴정부 출범후 첫 선거...인사난맥 이슈화

노원병 무공천 민주, 부산·충남서 총력전

여야가 27일 4·24 재보선 공천을 사실상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서울 노원 병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 부산 영도에 김무성 전 의원, 충남 부여·청양에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를 각각 공천했다.

서울 노원 병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충남 부여·청양지역의 공천후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부산 영도에 김비오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 후보가 서울 노원 병 공천을 받아 이미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에 나섰고, 통합진보당은 부산 영도에 민병렬 최고위원을 공천했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야 간 정치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출범 초반 불거진 ‘불통·코드 인사’가 선거 변수로 떠오르면서 야권의 ‘정권경종론’이 어느 정도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지역일꾼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초

반 평가를 대신 이슈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국민행복’ 기조를 지원해야 하는 집권당으로서 정부와의 교감 아래 지역 현안을 두루 챙길수 있는 ‘일꾼’이 절실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원세훈 게이트’ 총공세

민중통합당은 27일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헌정파괴·국기문란’, ‘원세훈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을 거듭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철수 대항마’로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 후보로 선정된 허준영 후보는 이미 자신의 명함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상계동 일꾼’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노원 병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권에 맞서 민주당의 무공천과 연계, ‘헌 정치론’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한 노원병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민주당은 충남 부여·청양과 부산 영도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장차관급 인사들의 출 사퇴로 드러난 인사 난맥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

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정권경종론’으로 승부를 걸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선대위를 각각 만들고 127명 소속 의원을 절반씩 나눠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의원들의 후원금도 모아 두 선대위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 영도의 경우, 인근의 사상에 지역구를 둔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양이 고향인 이해찬 전 대표도 부여·청양 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도전 나선 김한길 의원 인터뷰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만들겠다”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김한길(서울 광진 갑) 국회의원이 27일 광주를 찾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6·9 전당대회에서 권역별 대의원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 모바일 투표 등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석패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대선 후보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보다 시민·모바일 투표 비중이 큰 것은 당원을 무시한 처사였다”며 “대표가 되면 이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권 도전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이유는

▲지난 대선 패배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지역민에게 사죄와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광주를 찾았다. 민주당이 호남분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헌재 민주당의 혁신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은 계파정치 청산과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정치 구현이다. 최근 일부 주류 측 의원들 사이에 ‘전당대회가 책임론으로 가면 안 된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만 이야기하자는데 분노를 느꼈다. 현재 민주당에는 혁신의 것발만 펼쳐질 뿐 실제 혁신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반(反) 김한길 연대 움직임이



대선패배 충격 호남민들 위로·사죄하러 광주 왔다

범주류 기득권 유지 방편

反김한길 연대 움직임

범주류 기득권 유지 방편

연모이는데.

▲당내 범주류가 반(反) 김한길 연대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당을 장악해왔던 그 막강한 범주류가 뿔뿔 뿔쳐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김한길이 대표 되는 것 막아보겠다. 이걸 보는 국일부 주류 측 의원들 사이에 ‘전당대회가 책임론으로 가면 안 된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만 이야기하자는데 분노를 느꼈다. 현재 민주당에는 혁신의 것발만 펼쳐질 뿐 실제 혁신이 없는 것이 문제다.

-당원이 중심 되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 나온다는 당원 1조가 지난해 총선 직전 삭제됐는데도 당원이 모르고 있었고, 충분한 토론도 없었다. 그 1조를 삭제한 뒤 당권은 사실상 패권주의가 차지했고, 그들만이 총선과 대선을 주도하면서 두 번의 패배를 가져왔다. 이는 당원을 무시한 처사다. 정당은 당원들로 구성된 결과물로서, 당원이 중심이 된 뒤 의견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대표가 되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 서민·중산층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지세력을 확대해 5년 뒤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입장은

▲안철수 지지자 대부분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다. 민주당에 실망해 떠나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바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다. 안철수 후보에 기대하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민주당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태어난다면 상당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렇다면, 안 후보도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 ‘대선패배 책임론’ 사고 충돌

이용섭·강기정 “김한길, 선거 기간 지도부 공백 장본인”

김한길 “당시 137개 지역 돌며 문재인 지원 유세” 반박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 후보간 ‘대선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 등 범주류 후보들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에 오히려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며 “지도부는 그야말로 대선을 치르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사퇴하는 것이 무슨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전쟁을 치르는데 지휘부가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도 지난 26일 광주일

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대선 때 최고위원에서 사퇴해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만들지 않았느냐”며 “특히, 김 의원은 대선 패배론을 거론하며 전당대회를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 전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의원 측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새정치위원회가 지도부 총사퇴 의견을 낸 것을 수용해 최고위원직을 그만둔 것인데 이제 와서 지도부 공백 초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정치위원회가 대선 승리를 위해 지도부 사퇴로 의견을 모았고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를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당시 다른 지도부들이 새정치위원회 뜻과 달리 사퇴를 주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은 대선 때 선대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137개 지역을 돌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다”며 “문 후보보다 더 많은 지원유세를 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의 대의원과 당원을 만나기 위한 ‘경청 투어’에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성환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쟁점

이성환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이 쟁점이 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지만 새누리당은 사실 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경찰청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기보장제가 있는데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가 무엇

이 있느냐”며 “성접대 관련 동영상도 확실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경찰이 성접대 의혹 사건 동영상 분석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고 나서 3일간 숨긴 이유가 무엇이나”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내정자는 “구체적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금이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수사에 지우고하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새 정부의 주요 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라 사실 여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이날 “재산형성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불러온 데 대해 제가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말로 다문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0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매가 7억9천만 원 1억6천만 원, 용자 1억5천만 원

◆상가매매◆

- 신용동 첨단2지구 110㎡ 월수익400만 원 매매가 8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용자역 일 이동통신점 입점예정
- 신용동 첨단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매4억 원

분양

- 용두동 첨단2지구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매매가 2억9천만 원
- 용두동 첨단2지구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매매 1.632억(7천7백만원) -2구 직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용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피어노출형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상주역))
- 신용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건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상주역))

상가주택매매

- 신성동 하남2지구 1층점포32, 2층 투-쓰리복합 3층복합인접 월수익5500만 매7억3천만
- 월전동 흥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9억 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 상담)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충간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담.임.야

-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 매매가 평당9만 원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담 12,522㎡(763평)
- 매매가 평당150만 원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담2,988㎡(904평)
- 매매가 평당60만 원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운동7번 시내버스중점 전원주택지(전망중음)전2,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 원

총정리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렌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2층(사내내선)

NPL경매

- ▶배우면서 투자가능
- ▶실전투자 사례교육
- ▶1대1 개인지도
- ▶교육비 550만원

(주)오현정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정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